



중국 명의들의 처방 집대성

명나라 명의 강관과 두 아들이 60년만에 완성한 의서

“병에는 6가지의 불치병이 있다. 첫째는 교만방자하여 이치를 따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가벼이 하고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셋째는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넷째는 음양과 장기를 안정시키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몸이 여위었는데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명의가 된 강관(江權, 1503~1565)에 의해 1549년 초고가 완성된 <명의류안(名醫類案)>. 20년이란 시간을 통하여 초고가 완성된 후에도, 아들인 강응원(江應元)·강응숙(江應宿) 형제에 의해 교정과 보강을 거쳐 1591년에 간행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더욱더 긴 시간이 걸렸다.

모두 205문(門)으로 나누어 급·만성전염병 및 기타 내과잡병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종 병증에 대한 역대 명의들의 변증과 처방이 실려 있지만 이 책은 단순한 의학 서적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또 책에 기술되어 있는 저자 자신의 병과 치료 사례는 비교적 타당하다.

“중풍”에 걸려 말을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맥이 가라앉아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탕약을 사용하던 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방풍, 황기 달인 것 수십말을 침상 밑에 놓아두고 수증기가 나오도록 입과 코로 마시게 하면 곧 말을 할 수 있다. 술마시고 누워자다 풍을 맞아 병어리가 될 경우는 형력(痲痺, 음으로 된 한약에 지보단(至寶丹), 코렐소발 주사 비등 환비 호박가루 거북껍데기 각 1냥, 서우황 5돈, 사향 방편 각 1돈, 수안식향 1냥을 고아서 응고된 상태로 만든것을 녹여서 마시면 된다.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종창’에 걸리면 사물탕에 황금 황련 목련 백출 진피 후박 생강초를 탕으로 만들어 한달정도 복용하면 낫는다. 구창입안에 나는 부스럼을 치료하는 방법

을 뽕나무 즙을 바르는 것이다. 즙은 삼켜도 무방하다.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부인병에 결립 경우에는 인삼 백출같은 약을 5~7첩 복용하면 통증도 감소된다. 또 월경을 하면서 짜는 것 같은 참기 힘든 복통이 있으면 주자황련 반근, 초향부자 6냥, 오령지 반은 초하고 반은 생으로 3냥, 당귀신미 2냥을 가루내어 죽으로 환을 빚어 공복에 더운물로 3~4전을 복용한다. 출산할 때 자궁이 나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반장산이라고 한다. 이때는 식초 반잔에 찬 우물물 7푼을 사발에 섞어서 놓고 산모의 얼굴에 입으로 3번정도 뿜어주면 완전히 수축한다.

아이가 열이 나고, 가슴속이 타는 듯 답답하며,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붉은 노랑색 같은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황련 인진 각 5푼, 황금 황백 각 4푼, 복령 치자 각 3푼, 택사 2푼으로 하여 한번에 달여서 식전에 마시면 된다.

‘의계(醫戒)’편의 내용을 보면 의사의 윤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의 질병과 고통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의사를 부르거든 지체 없이 급히 환자에게 가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사람을 구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 만약 남이 위급한 틈을 타 재물을 구하는 데 뜻을 두고 마음 씀이 어질지 못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다.”

최고의 의사에게는 공덕이 크다는 것도 일러준다. “허물을 스스로 꾸짖고 치유되도록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 수명을 다하려다도 역시 이런 원력을 빌 수 있다면 정토에 왕생할 것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후세에 상품에 태어나지 않으면 현세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경할 것이니, 복을 짓는 것에 대한 보답은 끝이 없다”

이 책을 옮긴 동국대 한의대 구병수 교수는 “은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선인들의 번뜩이는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하심함도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면, 요즘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신풍(新風)이 불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명의류안(名醫類案)
강관 지음 | 구병수 옮김
동국대출판부 | 16만원

네티즌강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책과 사람과의 관계

위험한 책 들렉, 카를로스 마리아 도밍게스 지음
<위험한 책>은 우연적으로 책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블루마’에게 배달되어온 책 ‘조셉 콘래드’의 <새도 라인>을 발견한 주인공이 책을 발송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여행을 시작한다. 과거 그녀와의 하룻밤 짝막한 사랑을 확인 했던 ‘카를로스 브라우어’가 보내온 이 책은 시멘트와 불순물들이 범박이 된 채로 파손되어 주인공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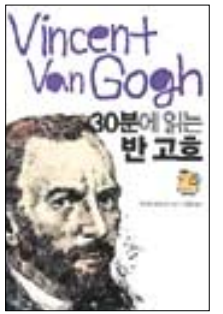


그가 <새도 라인>을 읽고 ‘카를로스 브라우어’에게 가깝게 지내며 그를 괴상한 애서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의 행적을 쫓는 동안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분명 이름만 들어도 입이 쩍쩍 벌어질 기라성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이름을 술하게 들으며 자그마한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진정한 애서자들 사이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얇은 문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던 나로서는 <위험한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책들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험한 책>을 읽고 자못 진지한 생각이 잠기다보니 또다시 이 책에 등장했던 많은 책들을 꼭 읽고 싶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스카.yes24.com/Goods)

30분 안에 빈센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30분에 읽는 반 고흐 랜덤하우스중앙, 앤드류 포스트 지음
나는 중학생 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 정확하게는 없지만 영항 ‘아수파’와 ‘모르르’는 기억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고 있는 사이 프러스 나무였다.



왜 빈센트가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렇게 즐겨 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책 사사회’에서 경이(?)적인 책을 만났다.

어떤 재주꾼이 빈센트를 30분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가? 30분 안에 똑똑 빈센트가 누구이며, 뭘 했으며, 왜 죽었는지를 알게, “간략하게 다루었다”고 했지만 차려는 사투 진지하다. 이 책은 빈센트 사후에 미술계와 많은 화가들에게 끼친 영항 ‘아수파’와 ‘독일 표현주의’ 그리고 화가로는 에드바르트 뭉크, 폴 고갱, 파블로 피카소, 몬드리안 등까지 정리해,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이 빈센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빈센트를 화제로 나누는 장소에서는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감수제도 많았다. <30분에 읽는 반 고흐>는 일반인의 교양서적, 그것도 빠른 시간에 빈센트를 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박창근.bookto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책 도독실에 성공한 이후 9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서양의 작가들이 하루하루 페이지마다, 책마다 드러내는 바깥세상의 신비, 무엇보다도 여자와 사랑과 색스의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고 매료되었다. ‘안경잡이’는 감히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 채 뉘엿뉘엿 뿐 아니라, 다행히 우리 마음의 존장마저 관할 공산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용정에 가 있었다. 존장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음에 일시적으로 퍼지고 있던 은밀한 무정부주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발길을 거부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간수로 바뀐 예전의 그 아련 농사꾼들도 그런 우리의 반항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두문불출한 채 서양소설들을 읽는 일로 나날을 보냈다. 나는 뭐가 유독 꼭 짝진 발자크의 작품들을 내버려두고, 내 열아홉 살의 경박함과 진지함으로 플로베르와 고골리, 멜빌, 로망 롤랑 등과 차례차례 사랑에 빠졌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 151~152쪽, 현대문학, 다이 시지에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외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에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바로보인의 책
대한불교진흥원 신사임당역사 / 지사기

전장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역검의 무명을 일깨우는 풍채한 佛眞眞!

바로보인 권동욱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권부경
바로보인 금강정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승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짓는 최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권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진동 비빔으로 산사에서
노닐면서 직접 만드신... **산속조청**

- 산속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속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속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않는 **산속참죽 조청** 1.2kg
이월, 냉동,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속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인간장을 배양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속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빈천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x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속조청원**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품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납골당 공사
- ◆ 석굴, 법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 공사 일체
-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원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7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이재갑

(株)天星建設